



VALUE UNIVERSE

VALUE TIMES

2019년 03월 첫째주



뉴라텍



아스타



와이랩



선재하이테크



딜라이트



NEWRACOM leads New Era for New Radio Communication

NEWRACOM leads innovation
by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뉴라텍 "차세대 IoT 와이파이 통신칩"

■ 뉴라텍 "차세대 IoT 와이파이 통신칩"

- MWC 전시 : 집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IoT 와이파이 통신칩
 -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802.11ah(ah스탠다드)' 개발
(반경 1.5km 내에서 와이파이 통신 사용 가능)
- ah스탠다드 기술을 개발에 성공한 업체 수는 뉴라텍 포함해 전 세계 총 다섯 곳
 - 이 기술을 칩으로 구현한 업체로는 뉴라텍이 유일
- 현재 제품 양산 준비에 돌입
 -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제품 판매 시작할 예정



계열사 노스퀘스트와 질량분석기기 판매계약 체결

■ 계열사 노스퀘스트와 질량분석기기 판매계약 체결

- 계열사인 노스퀘스트와 'IDSys LT(질량분석기기)' 판매계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판매(계약금액은 1억50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납품 확정함
 -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가축 전염병 및 축산육 등 가축 분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및 안전성 실시간 검사
 - 작업 시간 감축 및 효율적인 업무 프로토콜 구축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대한민국 독자적인 미생물 병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대한민국 전략 자산으로서의 미생물 자원화에 기여



신작 모바일게임 '슈퍼스트링' 공개

■ 신작 모바일게임 '슈퍼스트링' 공개

- 모바일게임 슈퍼스트링 : 라인게임즈 서비스 / 팩토리얼게임즈 개발
- 2019년 5월 9일 플레이엑스에서 공개
- 플레이엑스포 대표 IP로 선정
- 슈퍼스트링을 통한 게임과 행사 마케팅에 일조할 예정

※ 플레이엑스포 PlayX4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규모의 융복합 게임전시회이다. 2019플레이엑스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여 즐기는 행사이면서도 동시에 전시회와 수출상담회가 진행돼 중소기업의 홍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KOPLAS 2019참여

■ KOPLAS 2019 참여

- KOPLAS : 플라스틱, 고무 소재 및 복합재료전
→ 선재하이테크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
- 정전기 제거장치, 건식 이물세정 장비, 코로나처리기, 특수 화염처리기 소개 예정
- KOPLAS 2019 : 2019년 3월 12일(화) ~ 16일(토) (5일간)
KINTEX 제1전시장 4,5홀 P200 (선재하이테크)
- 세미나 진행 : 2019년 3월 13일(수) / KINTEX 제1전시장 컨퍼런스룸 211A
→ 주제 : 산업분야의 정전기 제거 및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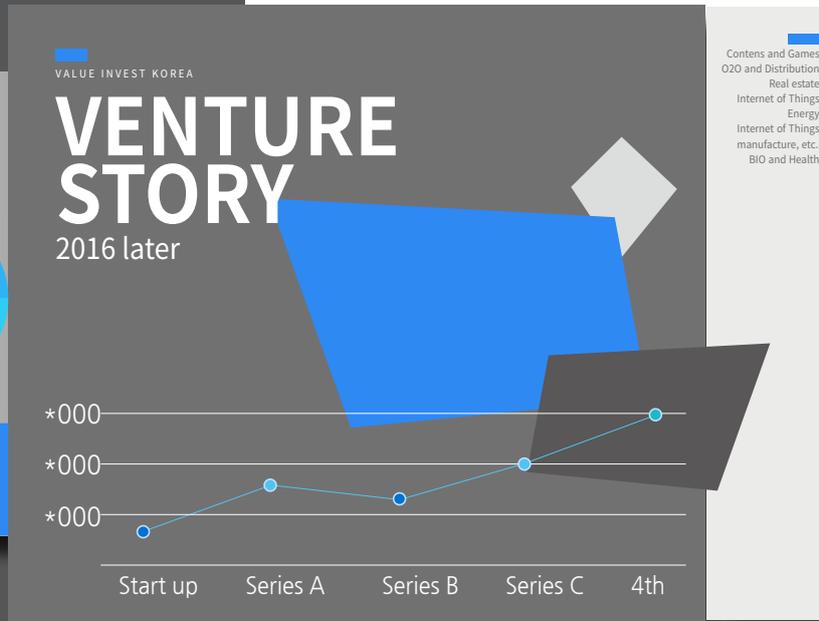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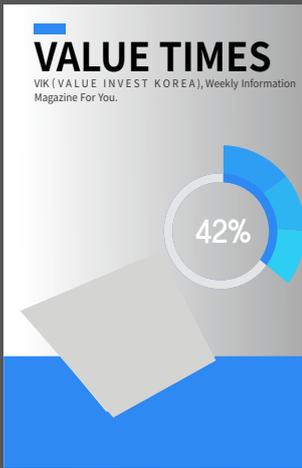
자동 조절기능 내장 음성증폭기 'PSA' 출시

■ 자동 조절기능 내장 음성증폭기 'PSA' 출시

- 블루투스 지원 1:1 음성증폭기 'PSA(Personal Sound Amplifier)'를 출시
 - 마이크 모드 : 외부 소리를 증폭
 - 블루투스 모드 : 스마트폰 등의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여 통화나 음악소리 증폭
- 자동조절기능이 내장된 발전된 음성 증폭기
- 난청유형선택 모드 진입으로 사용자의 난청상태에 맞춤형 청취 가능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79회 2019.03.06



● 민간투자에 목마른 모험자본시장



모험자본

venture capital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크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평균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중요한 원천을 모험자본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에 목마른 모험자본시장

국내 벤처투자 46%는 정책자금

- 혁신성장을 위한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해외 벤처 강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정책자금보다는 민간자금 유입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2018년 미국 벤처투자 규모는 1309억 달러(약 150조 원)로 전년(839억 달러) 대비 56% 급증했으며 투자 건수도 8948건에 달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벤처투자 비중은 0.13%로 미국 0.37%, 중국 0.28% 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벤처투자액은 전체 은행권 대출의 0.28%에 그친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 3.67%로 조사됨.
→ 지난 1월 기준 미국은 전 세계 309개 유니콘 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1개 기업을 보유 중이며 중국 기업은 82개인데 반면 한국 기업은 6개에 그침(유니콘 기업은 한 나라의 벤처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불림)
- 국내 벤처기업이 자금조달 방식은 정책지원금(60.5%)과 일반금융(23.3%) 등 보증이나 대출에 쏠려있으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비중은 0.1%임.
→ 국내 벤처기업이 정부 지원이나 대출을 제외한 민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벤처투자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시장에 민간 투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